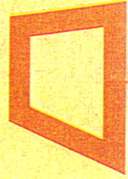


# 아시아경제



© Since 1988.6.15

AsiaEconomy.co.kr

인터뷰 루이 뱅상 게이브 게이브칼리서치 CEO

## “亞證시비중 지금 늘려라”

“현재 아시아 증시는 10년전 금융 위기를 겪을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펀더멘털 상의 문제가 없는 만큼 당장의 증시 하락을 우려하기 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릴 때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리서치회사 게이브칼 리서치의 최고경영자(CEO) 루이 뱅상 게이브(Louis Vincent Gave)(사진)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몇 년간 아시아 주식 시장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 비해 전망이 훨씬 밝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시장 내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도 낮고 금융시스템과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나 기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상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게이브는 “한국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노출된 것은 아니다”며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는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체결로 미 정부가 한국은행

의 리스크 우려를 불식시켜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미 정부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영국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등 선진국들과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을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내년부터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헤지펀드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자 그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시장 참여는 최대한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게이브는 “만약 정부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면 헤지펀드의 세가지 투자 방법(모멘텀·밸류에이션·캐리트레이드) 가운데 가장 위험성이 큰 캐리트레이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core81@